

YONHAP | 연합리퍼레  
**REPÈ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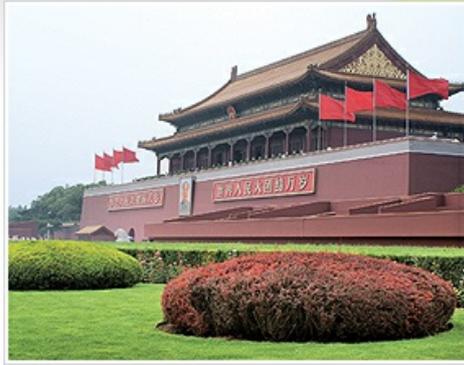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모/두/투/어

'북경 만리장성/용경협 4일' 상품 집중분석

Feature

2008 올림픽 맞은  
베이징 여행 상품



글·사진/임동근 기자

오는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제29회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다. 이번 달 연합리퍼레는 집중 분석 대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베이징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 모두투어의 '북경 만리장성/용경협 4일' 상품은 베이징 여행의 대표적인 패키지 상품으로 올림픽 기간이나 전후로 베이징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하다.

중국 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이다. 거리가 가깝고 직항 노선이 많아 방문하기가 쉽고, 여행 상품의 가격 또한 가장 싼 국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쓰촨 대지진으로 인해 중국을 찾는 한국인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은 여전히 많은 편이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여행객이 10% 감소했다.

중국은 패키지여행이 주류를 차지한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의 경우 자유 일정의 에어텔 상품이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패키지를 선택하고 있다. 최저가를 비교해 보면 에어텔이 10만 원 정도 싸지만 중국어를 모르면 여행하기 불편하고, 관광지 입장권을 비롯해 현지 교통, 식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중국 비자도 4명 이하라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패키지 상품을 넘어서게 된다.

물론 현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마음에 드는 관광지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에어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베이징의 경우 지하철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고, 최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는 40각(한화 약 60원),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패스는 2위안(한화 약 320원)으로 요금을 내렸기 때문에 베이징 시내를 싸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중국 패키지여행의 주요 목적지로는 장자지에(張家界), 구이린(桂林), 주자이거우(九寨溝), 황산(黃山), 쿤밍(昆明), 시안(西安), 하이난(海南), 칭다오(靑島), 백두산 등이 있다. 베이징을 방문하는 상품의 경우, 베이징과 주변의 만리장성 및 용경협을 함께 돌아보거나 구이린, 장자지에, 시안, 백두산 등 다른 여행지와 연계된 것들이 많다.

모두투어의 '북경 만리장성/용경협 4일' 상품은 베이징 여행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톈안먼(天安門) 광장, 쑤진청(紫禁城), 경산(景山) 공원, 천단(天壇) 공원, 이화원, 왕푸징(王府井) 및 류리창(琉璃廠) 거리, 후통(胡同) 등 베이징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만리장성과 명13릉, 용경협(龍慶峽, 룡칭샤) 등 인근의 하이라이트 관광지를 포함한 베이징 종합 세트 메뉴이다.

베이징 상품을 선택하면서 여행사들은 모두 매일 출발하는 일정의 상품을 갖추고 있었지만 최근 관광객 감소로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날짜의 상품은 많지 않았다. 동일한 일정의 다른 상품들이 있었지만 출발 가능한 날짜에 맞춰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사들이 내놓은 베이징 4일 상품은 관광지, 옵션투어, 쇼핑, 식사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모두투어와 롯데관광의 상품은 베이징수도공항을, 하나투어는 주로 톈진 공항을 이용한다. 톈진 공항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버스로 이동한다.



항공사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모두투어의 중국국제항공 이용 상품은 첫날 오전 9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정 마지막 날 오후 9시 45분에 돌아오지만 중국동방항공 이용 상품을 선택하면 오전 9시 10분에 출발해 오후 12시 20분에 귀국한다. 또 아시아나항공 이용 상품은 오후 3시에, 대한항공은 오후 2시 50분에 각각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중국국제항공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날에는 돌아오는 것 외에 일정이 없다. 방문 관광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현지 일정의 진행 속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품격] 북경 만리장성/용경협 4일**

날짜	시간	장소	일정
1일	09:30	인천	중국국제항공 CA138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출발
	10:40	베이징	베이징수도공항 도착 천단 공원 방문 중국 고유의 전통 예능 서커스 관람 석식(베이징 오리구이)
2일		식사	중식: 현지식, 석식: 오리구이
		베이징	만리장성(케이블카 왕복 포함), 명13릉, 용경협 방문 석식(휘귀 요리) 호텔 투숙
3일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샤브샤브
		베이징	텐안먼 광장, 쑤진청, 경산 공원, 왕푸징 거리 방문 호텔 투숙
4일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베이징	이화원, 류리창 거리(골동품 시장) 방문 중식(북한식)
	18:50		중국국제항공 CA137편으로 베이징수도공항 출발
	21:45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북한식, 석식: 기내식

가격 42만9000원-7월 7일 출발, 10일 도착(12세 미만 어린이 추가 침대 사용 시 42만9000원, 침대 사용 안 할 경우 38만6100원), 2세 미만 유아 15만원, 현지 여행사 통해 여행 참가 시 20만 원

인원 8명 이상 출발 가능

상품 특전 만리장성 케이블카, 발마사지, 중국 전통 서커스, 베이징 오리구이, 휘귀(샤브샤브), 북한식 제공

포함사항 전 일정 4성급 호텔, 왕복항공권, 전 일정 식사 및 입장료, 각종 세금(인천/베이징 공항세, 전쟁보험료), 1억 원 여행자보험, 가이드 및 기사 팀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 추가분(4만 원), 중국 비자 비용(2만1000원)

옵션 사항 베이징의 밤 디너 쇼 30달러, 전신 마사지 30달러, 인력거 투어 20달러, 후해 뱃놀이 20달러, 무술 쇼 20달러

쇼핑 한약, 실크, 라텍스, 옥, 찻집 등 방문 예정

**(1st day(1/7))**

**인천 → 베이징**

아침에 인천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한 후, 북한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텐안먼을 비롯해 쑤진청, 경산 공원을 둘러본 후 서커스를 관람했다. 베이징을 대표하는 변화가 이자 다양한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는 왕푸징 거리를 방문한 후 저녁식사는 오리구이를 먹었다. 일정표의 첫날 일정은 천단 공원 방문과 서커스 관람, 오리구이 식사가었지만 현지 가이드는 첫날과 셋째 날 일정을 바꿔 진행했다.



**예약, 단체비자 및 항공권 수령** ▶▶ 출발 10일 전 인터넷을 통해 출발 가능한 날짜의 상품을 선택한 후, 상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전화로 예약했다. 예약 담당 직원은 친절한 편이었고, 여행 상품을 비교적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더운 날씨에 대비한 복장을 알려주고, 우산도 꼭 챙겨갈 것을 권했다. 200~300달러 정도를 환전하고, 위안은 아주 조금만 바꾸고, 필요할 것이니까 원화의 경우에도 1000원짜리 지폐를 준비해 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출발 3일 전 전화 통화에서 이용 호텔이 일정표와 다른 호텔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나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국제항공의 비행기.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의 집합 시간은 출발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이른 아침 6시 30분이었다. 최근 인천공항의 항공사 배치가 바뀌었고, 지난 6월 공항 확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탑승동에서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이었다.

출발일 오전 6시 25분 모두투어 직원을 만나 항공권과 일정표를 전달받기 위해 인천공항 3층 서편 M카운터의 29번 테이블에 도착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고객 11명이 단체비자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두 도착한 이후에 설명을 한 후 항공권과 일정표, 단체비자를 줄 수 있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7시 15분. 한참을 기다렸지만 여행사 직원의 연락이 없어 카운터에 갔지만 아직 2명이 도착하지 않아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일행 중 몇 명이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그때서야 아직 오지 않은 고객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연락을 취했다. 5분 정도가 지나 나머지 고객 2명이 합류했고, 이들은 6시 30분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여행사 카운터를 찾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담당 직원이 늦은 고객에게 미리 전화를 했다면 더 빨리 수속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다.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 담당 직원은 여행 일정표를 개인별로 전달하고, 중국 현지 공항 출입국에서의 단체비자 사용법을 설명했다. 항공권의 경우에도 전자항공권 1장만 발급됐다. 담당 직원은 중국국제항공 수속 장소인 H카운터로 함께 이동한 후 탑승 수속을 진행하고, 단체비자 사용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여행사 카운터로 돌아갔다. 항공기의 좌석을 선택할 기회는 전혀 없었다. 일행은 오전 7시 50분이 넘어서야 출국 심사를 끝낼 수 있었다. 중국국제항공의 비행기를 타는 곳은 106번 탑승구. 지난 6월 20일부터 모든 외국항공사의 탑승구가 새로 문을 연 탑승동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서둘러야 했다. 여객터미널의 중간 지점인 27번과 28번 탑승구 사이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내려간 후 탑승동으로 가는 스타라인(운행 간격 3~5분)에 오르자 2분 만에 탑승동에 도착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오르자 양쪽으로 101~132번 탑승구가 위치하고 있었다. 106번 탑승구는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5분 정도를 더 이동해야 했다.

**항공기, 기내식** ▶▶ 9시 10분에 탑승한 항공기는 보잉 B777-200으로 좌석은 2-4-2 배열이었다. 인천에서 베이징까지의 비행 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창가와 통로 좌석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9시 50분 비행기가 이륙했고, 10시 15분 아침식사로 햄 치즈 샌드위치를 비롯해 작은 봉지에 담긴 사각형의 작은 영양찰쌀밥, 요구르트, 물, 음료가 제공됐다. 맛은 평이했으며 아침을 거른 상태라 양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었다. 음료는 콜라와 사이다, 오렌지 주스가 제공됐고, 맥주는 국산과 중국산을 갖추고 있었다. 기내는 비교적 청결한 편이었고, 승무원들은 미소와 친절로 고객을 대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기내 방송을 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중국 입국 수속 및 현지 가이드 만남** ▶▶ 도착 시간은 예정보다 5분 정도 늦은 오전 10시 45분이었다. 10여 분을 걸어서 이동한 후 5분 정도 지하철을 타자 입국 터미널에 도착했다. 일행은 단체비자에 적힌 이름 순서대로 줄을 선 후 입국 심사를 받았다. 차례대로 입국 심사를 받고, 일행 중 마지막이었던 사람이 단체비자 2장 가운데 한 장을 돌려받아 순서의 첫 번째 일행에게 전달했다. 입국장 밖으로 빠져나오자 ‘모두투어’라고 적힌 보드판을 들고 있는 가이드를 만날 수 있었다. 가이드는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선족 여성이었다. 일행은 총 17명으로 이용한 버스는 35인승이었다. 버스 내부는 비교적 깨끗했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왔지만 좌석 앞뒤 간격이 비좁았다. 공항을 출발한 시간은 11시 45분. 가이드는 자기 소개를 한 후 일정을 변경해 여행 마지막 날 점심식사로 예정돼 있던 북한식을 먼저 하고, 셋째 날의 일정을 첫날 진행한다고 했다. 현지 교통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가이드는 식당까지 이동 중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과 중국에 대한 개관, 간단한 중국어 등을 설명했다.

**Tour1 텐안먼** ▶▶ 30°C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의 베이징 시내의 희뿌연 스모그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텐안먼은 북한 음식점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텐안먼과 쑤진청을 방문할 때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고, 생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행이 이용한 관광버스에서는 생수 500ml 3병을 1000원에 판매했다. 도시에 있는 광장 중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텐안먼 광장(44만㎡)에는 수많은 서양인과 동양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다. 인민영웅기념비가 광장 중심에 솟아 있고, 중국혁명박물관, 마오쩌둥 주석 기념당, 인민대회당이 광장을 둘러서 있었다. 텐안먼 광장에서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텐안먼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가이드를 따라 지하철로 길을 건너 중앙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섰다. 사각형의 광장이 나타났고, 다시 중앙의 문을 지나자 초록빛 가로수가 도열한 사각형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로수 주변으로는 기념품점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60대 할머니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관광객들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3명, 4명, 6명씩 조를 짚지만 느린 걸음의 할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가이드를 따라가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당황한 가이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30여 분 만에 할머니를 찾아왔고, 그 뒤에야 일행은 쑤진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Tour2 쑤진청** ▶▶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정치의 중심지이자 황제의 거처였던 쑤진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중국의 사상과 기술을 융화시킨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나라의 영락제가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14년간 전문 장인 10만여 명, 연 인원 100만 명을 동원해 건설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이다. 그러나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 각종 전쟁을 거치

면서 주요 유물은 타이완으로 넘어가버렸다. 쑤진청의 입구인 오문을 통과해 금수교와 태화문을 지나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황제의 사무실과 침실로 사용되던 건청궁, 내전인 교태전, 곤녕궁 등을 스치듯 지나며 돌아보고는 인공 정원인 어화원에서 겨우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중국 각지에서 수집한 나무와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10여 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일행은 쑤진청을 빠져나왔다. 텐안먼 광장에 도착한 후 쑤진청 관광을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 잃은 할머니를 기다린 30분을 포함해도 2시간에 불과했다.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한 시간이었다.

**Tour3 경산 공원** ▶▶ 쑤진청 북문인 신무문 북쪽에 자리한 경산 공원은 황제들의 전용 공원으로 해발 108m에 있는 만춘정(万春亭)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가이드는 만춘정 관광에 35분을 주었다. 대부분은 만춘정에 올랐지만 일부 나이 든 관광객은 더운 날씨에 많이 걸었던

탓에 밑에서 쉬겠다고 했다. 10~15분이면 달는 만춘정에는 베이징의 전경을 감상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기는 희뿌옇지만 황금빛 지붕이 사각형의 울타리 안에 빼곡하게 들어선 쑤진청은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Tour4 왕푸징 거리** ▶▶ 왕푸징 거리는 베이징 최대의 쇼핑가로 백화점 밀집 지역이다. 음반, 서적 등 200여 개의 가게가 있는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여행 일정표에는 ‘북경시 최대의 변화한 거리, 현대화된 북경의 모습과 함께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왕푸징 거리에서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포장마차 행렬을 보고, 몇 가지 음식을 맛보았을 뿐이다. 현대적인 베이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포장마차에서는 각종 꼬치와 국수, 과일 등을 싼 값에 맛볼 수 있었다.

**Lunch 북한식(평양관)** ▶▶ 베이징에 있는 북한 음식점은 10여 개로 그 중 옥류관을 최고로 꼽지만 일행이 간 곳은 평양관이었다. 평양관은 20여 개의 탁자가 놓인 중간 규모의 식당이었고, 손님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뿐이었다. 분홍색 원피스에 흰색 앞치마를 두른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음식을 날라왔다. 메뉴는 냉면과 닭고기 국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반찬으로는 배추김치와 깍두기, 돼지고기 양념구이, 계란 부침 등이 나왔다. 냉면은 붉은 국물에 가락국수를 말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몇 젓가락 맛을 보더니 모두들 맛이 없다며 먹지 않았다. 닭고기 국밥은 누런 국물에 밥을 넣고 전과 버섯, 지단을 올렸는데 특별한 맛은 없고 싱거웠지만 먹을 만했다. 북한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던 모양인지 실망도 컸다. 식사 중에는 종업원들이 노래방 기기를 켜놓고 10여 분간 노래를 3~4곡 불렀지만 공연의 수준은 캄보디아 시엠리아프에서 보았던 북한 식당에서의 공연과 비교하면 훨씬 떨어졌다.

**Dinner 오리구이(카오야)** ▶▶ 베이징을 대표하는 음식인 오리구이(카오야)는 왕푸징 거리 인근의 ‘추지원주루(秋之原酒樓)’에서 맛볼 수 있었다. 오리 모양의 접시에 놓인 오리구이를 비롯해 돼지고기를 이용한 2~3가지 요리와 마파두부, 나물, 계란탕 등이 탁자에 올라왔다. 그러나 일행은 오리구이의 맛이 별로라고 평가했고, 계란탕도 싱겁고 아무런 맛이 없었다. 일행들은 주로 밥과 돼지고기 요리로 배를 채웠다.

**Bonus1 중국 전통 서커스** ▶▶ 중국 전통 서커스는 대부분의 베이징 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전이다. 서커스가 펼쳐지는 극장에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좌석은 지정석으로 2층에 배정됐지만 일부 좌석은 조명시설 때문에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되고 좌석이 많이 비어 있었지만 극장 종업원은 자리 이동을 허락하지 않아 일부는 불편한 자세로 서커스를 관람해야 했다. 좀 더 세심한 자리 배정이 아쉬웠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현란한 묘기는 즐거움을 전했지만 관광객 일부는 단잠을 청하기도 했다.

**Option1 전신 마사지** ▶▶ 가이드는 저녁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전신 마사지 신청을 받았다. 1시간 30분에 3만 원으로 호텔 객실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마사지는 비싸도 100위안(1만7000원)이기 때문에 비싼 편이었지만 일행 중 절반 이상이 신청했다. 마사지는 호텔에 돌아온 이후 객실에서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이 만족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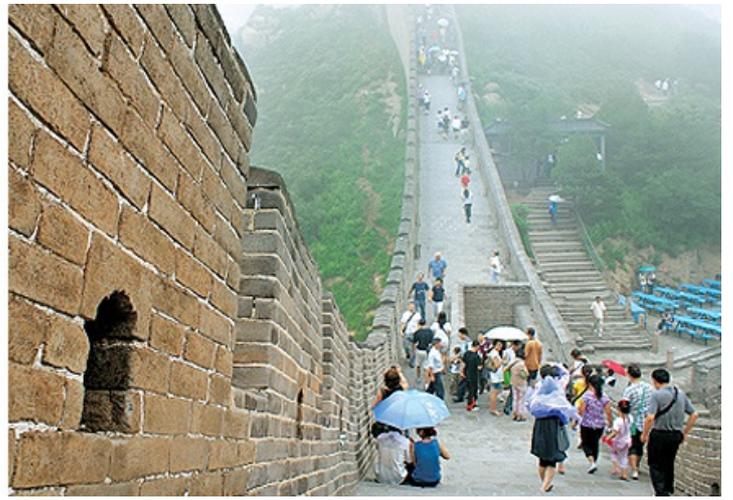
**Hotel 팀보(天寶) 호텔** ▶▶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서 남서쪽으로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팀보(天寶) 호텔을 이용했다. 처음 여행 일정표와는 호텔이 달랐지만 출발 3일 전 호텔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팀보 호텔은 4성급으로, 외관이 좀 낡고 호텔 주변이 지저분해 보였지만 객실은 깨끗하고, 인테리어는 현대식이었다. 에어컨 성능도 좋았고, 텔레비전, 책상, 전화, 안전금고, 냉장고, 커피포트 등이 갖춰져 있었다. 텔레비전 채널은 70여 개 정도였지만 대부분이 중국어 방송이었고, 영어 방송이 4개 채널, 한국어 방송은 없었다. 샤워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었고, 욕실에는 비누와 칫솔 및 치약, 샴푸, 샤워캡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 2st day(7/8)

### 명13릉→만리장성→용경협

명나라 황제 13명의 호화스런 묘지인 명13릉 중 정릉을 방문하고, 인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유적인 만리장성과 높이 솟은 기암 봉우리를 이 장관을 이룬 용경협을 유람선으로 돌아봤다. 베이징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는 발마사지를 받았다.



**Breakfast 호텔 뷔페** ▶▶ 팀보 호텔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3일간 뷔페식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빵과 식빵, 버터, 잼, 시리얼, 볶음밥, 쌀밥, 국수, 오리구이, 배추김치, 각종 야채, 우유,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가 마련돼 있었다. 또 계란 프라이나 오믈렛을 즉석에서 주문할 수 있었다. 준비된 음식 종류가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맛이 별로 없었으며, 과일은 수박이 나왔지만 싱싱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자리를 잡기 힘들었고, 종업원들이 빈 그릇을 늦게 치워 청결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3일째 아침식사에는 계란 프라이나 오믈렛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없었다.

**Tour1 명13릉(정릉)** ▶▶ 베이징 북서쪽 50km 지점의 창평현(昌平縣) 천수산(天壽山) 기슭에 자리한 명13릉은 중국 명나라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한 1420년부터 명나라가 멸망하는 1644년까지 황제 13명을 모셔 조성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현재 3대 영락제의 무덤인 장릉(長陵)과 14대 만력제의 무덤인 정릉(定陵, 덩링), 신도(神道)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이 중 일행이 방문한 곳은 정릉이었다. 아침부터 흐리던 날씨는 정릉에 도착하자 비로 바뀌었다. 대부분 우산이나 양산을 준비해왔지만 없는 사람은 입구에서 우산을 구입해야 했다. 특히 여름에는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베이징 외곽이나 산간 지역은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베이징 여행에서는 우산을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정릉 입구의 13릉 박물관에는 이곳에서 출토된 옷과 관, 신발, 도끼, 장신구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일정에 쫓겨 유물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지하 궁전은 규모는 거대했지만 그다지 볼거리는 없었다. 내부에는 최근에 새로 만든 관과 돌로 만든 의자 등이 있을 뿐이었다.

**Shopping1 옥 판매점** ▶▶ 일정 중 첫 번째 쇼핑 장소는 옥 판매점이었다. 주차장에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담 남성 직원이 갤러리처럼 꾸며놓은 전시실을 돌며 옥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고, 상당히 큰 규모의 매장으로 안내했다. 관광객들은 별별이 흩어져 옥 관련 상품을 구경하고 돌아보거나 마음에 드는 귀걸이나 목걸이 등 장신구를 구입하며 시간을 보냈다. 옥 판매점에서는 1시간을 보냈다.

**Tour2 만리장성** ▶▶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방어용 성벽으로 약 2700km에 걸쳐 뻗어 있다. 총연장은 6000km 정도이지만 곳곳에서 장성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 그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만리장성의 가장 대표적인 구간인 팔달령(八達嶺) 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였지만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케이블카는 운행되고 있었다. 1대에 6명씩 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위쪽을 향해가자 아래쪽 풍경이 흐릿해지더니 이내 주변 풍경은 안개와 구름 속에 갇혀버렸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장성 입구에 도착하자 비바람이 몰아쳤다. 만리장성을 둘러보는 데 주어진 시간은 40여 분이었지만 비바람이 거세고, 짙은 구름으로 불과 20~30m 밖에 보이지 않아 관광객들은 서둘러 장성을 디더보고는 집결지로 내려가버렸다. 팔달령 장성을 오르내리고, 박물관과 영화관까지 들른다면 7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곳이지만 그만 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아 일행들은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려올 때도 케이블카를 타고 5분에 걸쳐 아래로 내려왔지만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있었다. 가이드는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가 좋은 날로 일정을 변경하면 좋겠지만 날씨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했다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관광객들의 불평과 항의가 잇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our3 용경협** ▶▶ 베이징에서 북서쪽으로 85km 떨어진 험곡인 용경협은 높이 70m의 콘크리트 댐 건설로 인공 호수가 형성되며, 기묘한 봉우리들이 아름다움을 전하는 관광지가 된 곳이다. ‘작은 구이린(小桂林)’, ‘작은 산사(小三峽)’로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지나며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용경협에 도착하자 비가 그쳤다. 댐 너머에서 내려오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의 노란 모험 용을 씌운 기다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른 후 짧은 터널을 지나자 호수가 펼쳐졌다. 일행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유람선에 올라 관광을 즐겼다. 유람선이 천천히 나아가자 시원한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호수의 물길을 둘러싼 다양한 기암과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관광객들은 30분 동안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Lunch & Dinner 현지식, 샤브샤브** ▶▶ 점심식사는 돼지고기를 위주로 한 5가지 요리와 마파두부, 나물, 햄 구이, 나물, 된장국과 김치 등으로 구성된 맛 좋은 식사가 나왔고, 저녁식사는 쇠고기와 양고기, 각종 야채를 이용한 샤브샤브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 모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요리들이어서 일행들은 모두 만족해 했다. 특히 점심 때의 된장찌개와 저녁 때의 샤브샤브 및 김치는 느끼한 중국 음식으로 잃어버렸던 입맛을 되돌려 주었다.

**Bonus2 발마사지** ▶▶ 마사지 솜은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위치했다. 마사지 솜에는 한번에 40여 명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마사지룸이 몇 개 마련돼 있었고, 일행은 한 방에 들어가 마사지의자에 누웠다. 남녀 마사지사들은 어깨와 머리를 마사지해준 후 발을 마사지해주었다.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매니저가 들어오더니 1만6000원을 내고 각질 제거를 하면 세족제와 무좀 치료제를 준다고 했다. 일행 중 6명 정도가 각질 제거를 받았다. 팁으로는 2000원을 주었다.

### 3st day(7/9)

천단 공원→후통→류리창 거리

명·청나라 때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오곡의 풍작을 기원했던 장소인 천단 공원을 관광하고, 베이징의 옛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후통 지역을 인력거로 돌아보며, 골동품 시장인 류리창 거리를 방문했다.



**Tour1 천단 공원** ▶▶ 천단 공원은 중국의 황제들이 제천의식을 행하던 곳으로 명나라의 영락제에 의해 1420년에 세워졌다. 이 공원의 크기는 273만㎡로 세계 최대의 도시 광장이라는 텐안먼 광장보다 7배나 더 크다. 공원 내에는 원구단을 비롯해 황궁우, 기년전 등 우주를 상징하는 둥근 구조물과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천단 공원 입구에서는 부채춤, 제기차기, 태극권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바닥에 물로 한자를 쓰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가이드는 노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단 공원을 돌아보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다. 그만큼 빨리 걸어 가이드를 쫓아다녀야 했다. 공원을 돌아보고 나자 등과 목덜미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Shopping2,3,4 동인당(한의원), 진주·차 판매점** ▶▶ 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50분과 4시 40분에 1시간씩 한약방, 진주 및 차 판매점에서 쇼핑을 했다. 베이징 기차역 인근의 동인당에서는 한의사의 진맥을 받았다. 1인당 1~5분 정도의 상담을 한 후 어떤 사람은 한약을 짓기도 했다. 진맥이 진행될 동안 기다리며 3000원에 5분 정도 마사지를 받기도 했다. 올림픽 주경기장 인근 민속촌의 진주 판매점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설명이 진행됐다. 판매점의 총회장이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과 진주를 이용한 화장품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옆에 마련된 매장을 둘러보게 했다. 정상 판매가의 50%를 할인해주고, 선물도 준다는 말에 사람들은 흑한 모습이었지만 구입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진주 판매점 인근의 차 판매점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설명과 시음이 진행됐다. 우롱차, 재스민 차, 보이차를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일행 대부분이 주변 친척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로 차를 몇 통씩 구입했다. 차는 쇼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Option2 후통 인력거 관광** ▶▶ 후통은 근 800년 간 서민들의 주거지로 사용되던 베이징의 뒷골목이다. 이곳은 낮은 담과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어 옛날의 풍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허름해 보이던 후통의 골목길이 정비되고, 담과 창, 대문 등에 페인트가 덧칠해지며 멋스러운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

점심식사 후 후통으로 이동했다. 별도의 가이드가 안내를 했고, 인력거(2만 원)로 돌아볼 수 있었다. 곳곳에서 인력거의 행렬을 볼 수 있었고, 각종 과일과 고기, 물고기 등을 파는 재래시장을 구경할 수 있었다. 또 관광객에게 개방된 옛날 가옥에 들어가서는 차를 마시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Tour2 류리창 거리** ▶▶ 베이징 최대의 골동품 시장으로 명나라 때 궁전에서 사용하던 유리 제품을 생산하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골동품을 비롯해 문방사우, 고서적 등 중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판매되고 있다. 화려한 간판과 최근 색칠한 듯한 벽면과 지붕은 화려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일행들은 고서적 서점이나 화랑 등 몇 군데만을 기웃거리고는 돌아서버렸다. 대부분이 흥미를 갖지 못해 결국 15분 만에 모두 버스로 돌아왔다.

**Lunch & Dinner 한식, 현지식** ▶▶ 점심식사는 여행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식을 맛볼 수

있었다. 한인식당에서는 된장찌개를 비롯해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배추김치, 두부, 콩나물 등이 쌀밥과 함께 제공됐고, 일행은 간단한 한식에 모두 만족해했다. 저녁식사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의 식당에서 현지식을 먹었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3~4가지 요리와 마파두부, 계란 부침, 배추김치 등이 쌀밥과 함께 제공됐으며, 비교적 맛있는 편이었다.

## 4st day(7/10)

### 이화원-쇼핑 및 '짜퉁' 시장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별궁이자 황실 정원으로 3개의 인공 호수와 인공 산이 있는 이화원을 방문한 후 나머지 시간은 점심식사와 쇼핑에 주어졌다. 예정된 쇼핑을 한 후에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출발 시간에 여유가 많아 '짜퉁' 시장을 방문한 후 공항으로 이동했다.



**Tour1 이화원** ▶▶ 베이징 북서부에 위치한 이화원은 면적이 2.9km<sup>2</sup>인 중국 최대의 황실 정원이다. 이화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면적의 쿤밍호(昆明湖), 서호, 남호 등 3개의 인공 호수와 호수를 만들며 파낸 흙으로 쌓은 만수산(万壽山)으로 이뤄져 있다. 북쪽 호안을 따라서는 황제들이 정무를 보던 인수전(仁壽殿)과 청나라 말기에 전권을 장악한 서태후가 황제인 광서제를 10년간 유폐했던 옥란당(玉瀾堂), 경극 극장으로 사용됐던 덕화원(德和園), 서태후가 머물던 낙수당(樂壽堂), 728m에 걸쳐 늘어선 273칸의 회랑 등이 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이화원의 주요 건물들을 함께 둘러본 후 회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40여 분 간 돌아보기로 했다. 관광객들은 회랑을 따라 천천히 걸거나 회랑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했다. 마지막 날은 일정이 많지 않아 이화원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Lunch & Dinner 현지식, 기내식** ▶▶ 라텍스 판매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허름한 시설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 3가지와 배추김치 등이 밥과 함께 나왔지만 일정 중 가장 요리 종류가 적었고 맛도 없었다. 대부분이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가 놓았다. 저녁식사는 기내식으로 생선과 쇠고기가 나왔지만 쇠고기가 빨리 떨어져 승객 상당수는 생선을 먹어야 했다.

**Extra Tour '짜퉁' 시장** ▶▶ 베이징 패키지여행에서 시간이 남을 때 가는 곳이다. 재래시장이 아니라 한국의 동대문처럼 깨끗한 건물에 매장들이 들어선 곳으로 의류를 비롯해 시계, 전자제품, 가방, 신발, 안경, 실크 제품 등 진품과 거의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된다. 흥정을 통해 엄청나게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점원들이 옷을 잡아끌며 구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마음 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되기도 한다. '짜퉁' 제품을 사들고 오다 세관에 적발되면 물건은 압수 및 폐기되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Shopping5, 6 라텍스 및 실크 판매점** ▶▶ 이화원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의 라텍스 매장을 방문했다.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패키지여행에서와 똑같은 설명이 이어졌고, 점원들은 가족 단위로 개인별로 상담하며 판매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구입한 사람은 없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실크 판매점으로 이동했다. 누에에서 뿜은 솜으로 이불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명주 이불과 비단을 이용한 각종 상품들을 보여주었다. 여성 관광객들은 선물용으로 스카프를 구입했다.

**베이징 출국 수속, 인천 공항 입국** ▶▶ 출발 시각보다 3시간 이른 오후 3시 50분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가이드는 중국국제항공 카운터에서 출국 수속을 도와준 후, 탑승구까지는 멀기 때문에 탑승구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일행은 중국 입국 때처럼 비자 순서대로 출국 수속을 밟았다. 탑승구는 E51로 한적한 곳에 있었고, 일행은 탑승구 앞에서 한가로우면서도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탑승 20분 전에 탑승구가 E11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10여 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탑승구 변경에 대한 특별한 안내 방송은 없었다. 인천 공항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9시 45분이었지만 비행기는 9시 30분에 도착했다. 그러나 게이트까지 15분이 걸렸고, 탑승동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10여 분, 입국 심사를 받고 수하물을 찾아 나오는 데까지 다시 20여 분이 소요됐다. 대부분의 공항버스가 10시 30분이면 끊기는데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일행은 버스가 끊어질까봐 조바심을 냈다.

### 베이징 올림픽 관련 여행 상품▶▶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나 야구 대표팀의 예선 전 경기 날짜에 맞춰 경기 관전이 포함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림픽을 만끽하면서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일석 이조 여행이다. 물론 올림픽 개막 이전 및 진행 기간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비싸다. 하나투어의 야구 대표팀 예선 경기 관전 상품은 4일 일정으로 5가지가 있으며, 가격은 94만 9000원부터이다.

▲모두투어

관전 축구 경기	상품명	출발일	상품 내용	가격
대한민국 VS 카메룬 이탈리아 VS 온두라스	베이징 친황다오 4일	8월 5, 6, 7일	왕푸징 거리, 텐안먼, 쑤진청, 이화원, 만리장성 관광, 베이징 오리구이 특식	104만9000원부터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카메룬 VS 온두라스	베이징 친황다오 3일	8월 8, 9, 10일		
대한민국 VS 카메룬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베이징 친황다오 5일	8월 7일	만리장성, 쑤진청, 이화원, 왕푸징 거리, 야생동물원 관광, 오리구이 및 북한식 특식	144만9000원부터
대한민국 VS 온두라스	품격 상하이/ 항저우 4일	8월 11, 12, 13일	황푸 강 유람선, 송성가무소, 상하이 서커스, 서호 유람선, 상하이 옛 거리, 난징로 관광, 예원, 발마사지 특전	69만9000원부터

▲하나투어

관전 축구 경기	상품명	출발일	상품 내용	가격
대한민국 VS 카메룬	베이징 친황다오 3, 4일	8월 6, 7일	왕푸징 거리, 텐안먼, 쑤진청, 이화원, 만리장성 관광, 발마사지 특전	114만9000원부터
	선양 친황다오 4일	8월 6일	신라유적지, 요녕성 박물관, 만리장성, 선양고궁, 북릉 공원	89만9000원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베이징 친황다오 3, 4일	8월 9, 10일	왕푸징 거리, 텐안먼, 쑤진청, 이화원, 만리장성 관광, 발마사지 특전	104만9000원부터
	선양 친황다오 3일	8월 9일	선양고궁, 북릉 공원, 만리장성	79만9000원
대한민국 VS 카메룬 · 이탈리아	친황다오 5일	8월 7일	만리장성, 북대하 해수욕장	149만9000원부터
대한민국 VS 온두라스	상하이 항저우 4일	8월 상하이 11, 12, 13일	도시역사박물관, 서호 유람선, 성황곽, 용정차 농원, 상하이 옛 거리, 난징로, 동방명주 관광, 발마사지 특전	64만9000원부터

▲롯데관광

관전 축구 경기	상품명	출발일	상품 내용	가격
대한민국 VS 카메룬, 이탈리아 VS 온두라스	베이징 3일	8월 6일	텐안먼, 쑤진청,	89만9000원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카메룬 VS 온두라스	베이징 3일	8월 9일	만리장성 관광	129만9000원부터
대한민국 VS 카메룬 · 이탈리아 등 총 4경기	베이징 5일	8월 7일	텐안먼, 쑤진청, 천단 공원, 만리장성, 명13릉, 용경협, 이화원 관광	129만9000원부터

르페르 Opinion (★★★★★ 만점)

1 예약 과정 ★★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상품과 날짜를 선택한 후 전화를 걸어 예약했다. 여행 일정이나 안내 사항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적혀 있었고, 예약 담당 직원은 궁금한 것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주었다. 그러나 200~300달러를 환전하라고 했지만 현지에서는 원화만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달러로 바꾸는 데 수수료가 발생했고, 원화보다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손해였다. 현지 호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였다.

**2 항공기 ★★★** 중국국제항공을 이용했다. 항공기 청결 상태는 좋았으며, 스튜어디스들은 미소로 고객들을 대하며 친절했다. 기종은 보잉 B777-200으로, 좌석 배열은 2-4-2였으며, 거의 빈자리가 없었다. 베이징 행의 기내식은 샌드위치였고, 인천 행은 닭고기나 쇠고기였지만 모두 맛이 별로 없었다.

**3 현지 교통수단 ★★★** 여행 내내 35인승 버스를 이용했다. 여행에 참가한 사람은 총 17명으로, 좌석의 앞뒤 간격이 비좁았지만 1명이 두 좌석을 차지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차량 내부는 청결했고, 냉방 시설도 좋았다. 운전기사가 생수 500ml 3병을 1000원에 판매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물이 아주 차갑지는 않았다. 운전 중 과속으로 2~3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4 호텔 ★★★** 관광객들이 이용한 곳은 4성급인 팀보 호텔(Timbo Hotel)이었다. 외관은 허름해 보였지만 객실은 비교적 깨끗했다.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객실에서의 전망은 좋지 않았다. 도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으로 관광지로의 이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했고, 주변에는 특별하게 갈 곳이 없었다. 호텔 마당에서 음식과 술을 값싸게 판매했다.

**5식사 ★★** 호텔 뷔페식과 북한식, 오리구이, 샤브샤브, 한식, 현지식 등 종류는 다양했다. 3일 동안 아침마다 먹었던 호텔 뷔페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맛도 별로 없었다. 특히 여행 3일째에는 계란 프라이나 오믈렛 즉석 요리도 제공되지 않았다. 북한식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물냉면은 맛이 너무 없어 대부분이 한 젓가락을 먹은 후 내려놓았고, 닭고기국밥도 별로였다. 베이징을 대표하는 요리인 오리구이도 보통이었으며, 일부 현지식의 경우에는 젓가락을 몇 번 집었다 놓을 정도로 맛이 없었다.

	1일	2일	3일	4일
조식	기내식 **	호텔 뷔페 **	호텔 뷔페 *	호텔 뷔페 **
중식	북한식 *	현지식 ***	한국식 ***	현지식 *
석식	오리구이 **	샤브샤브 ****	현지식 ***	기내식 **

**6일정 구성 및 충실도 ★★** 베이징 및 주변의 주요 관광지를 대부분 둘러볼 수 있는 일정으로 짜여 있었지만 현지에서 일정이 변경되어 조금 혼란스러웠다. 관광지에서는 빠르게 이동했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제대로 둘러볼 수 없었고,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따라다니기도 힘들어 보였다.

**7선택 관광 만족도 ★★★★★** 가격 만족도 ★★ 선택 관광은 전신마사지(3만 원)와 후통 인력거 관광(2만 원) 2가지였다. 전신마사지는 비싼 편이었지만 호텔 객실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고, 선택한 관광객들은 모두 시원했다며 만족해 했다. 인력거로 베이징의 뒷골목인 후통을 돌아보는 관광은 가장 인상적인 일정 중 하나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단장을 하고 있어 고졸한 맛은 없었지만 재래시장과 후통의 고택과 골목은 특별한 풍경이었다. 가격은 좀 비싸다는 느낌이었다.

**8쇼핑 ★** 옥, 한약, 진주, 차, 라텍스, 실크 등 공식적인 쇼핑만 무려 6번이었다. 2일째 점심 이후 식당 옆의 잡화점과 ‘짜퉁’ 시장까지 포함하면 8번에 달한다. 평균 4곳 정도를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여행 상품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관광객들은 차와 실크에는 관심을 표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이 무관심했으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짓기도 했다. 어떤 일행의 경우 잡화점에서 비옷을 구입했는데 포장을 뜯고 보니 찢어져 있어 교환을 했지만 새로 받은 것도 역시 찢어져 있었다. 교환 시 점원이 짜증을 냈고, 일행과 점원 간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9가격 ★★★★★** 이번 취재를 위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은 42만9000원이다. 그러나 유류할증료 인상분(4만 원)과 중국 단체 비자 수수료(2만1000원)를 더하면 실제 가격은 49만 원인 셈이다. 7월 현재 똑같은 일정의 다른 날짜 상품들은 37만9000원부터 64만9000원까지로 다른 여행사와 거의 비슷하다. 동일한 일정으로 ‘고품격’, ‘품격’ 등의 상품이 있으며, 선택한 상품은 ‘품격’이다. 고품격의 경우 5성급 호텔을 이용하고, 인력거 관광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커스 관람 시에도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가격 차이가 1만~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는 고품격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상품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자 휴가철인 8월에는 79만 9000원, 89만9000원이 보통이고,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10가이드 ★★★** 선택 관광인 전신마사지와 인력거 관광을 권유했지만 쇼핑은 전혀 강요하지 않았다. 텐안문에서 노인 1명이 길을 잃었을 때는 30여 분간 돌아다니며 찾는 책임감도 보여줬다. 그러나 유적지에서는 충분한 자유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 관광객들은 뒤쫓아가느라 바빴다.

**여행에 사용한 비용**

- 여행 출발 전 상품 가격 429,000원, 유류할증료 인상분 40,000원, 중국 단체 비자 비용 21,000원
- 여행 첫째 날 선택 관광 전신마사지 비용 30,000원
- 둘째 날 발마사지 팁 2,000원
- 셋째 날 동인당 한의원 마사지 3,000원, 선택 관광 인력거 투어 20,000원
- 넷째 날 현지 가이드 팁 5,000원
- 총 비용 55만 원(음료 등 개인 기호품 및 물품 구입 비용은 제외)

